

더! 효율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양계산업

국민보건과 가계경제 향상에 기여한 양계산업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전인 1962년 87\$에서 84년에는 드디어 2천44불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고기 소비량은 70,596톤에서 592,862톤으로 무려 8.4배가 증가하였다.

62년대비 85년의 육류소비량

육류별	62년	85년	대비
쇠고기	16,847M/T	120,342M/T	7.1배
돼지고기	38,019	346,274	9.1
닭고기	15,730	126,246	8.8
육류합계	70,596	592,862	8.4
계란	46,151	296,476	6.4
우유	2,648	990,549	374.2

같은 기간 동안에 국민소득이 23배나 증가하자 우리국민은 지나치게 많은 양의 고기를 마구먹어 치운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치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식생활 문화 향상에 의한 국민복지증진과는 거리가 먼 양계산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양계산업 발전에 각종 제약을 가하고 있다. 소위 배합사료의 쿼터제니 가공산업 식민지축산하는 용어들이다.

노영한

본지 편집국장

아직도 더 많이 먹어야될 입장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낭비가 아닌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16일(세계 식량의 날) 국내 저명한 영양학자, 의사 등으로 구성된 식생활 개선 범국민 운동본부에서 제정하여 발표한 국민 식생활 개선지침을 보면 우리국민에게 축산물 수산물 콩류 등 단백질과 우유를 많이 먹자고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생활의 내용을 양에서 질로 바꾸어가는 것은 사람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의 욕망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식생활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값과 영양성분만을 계산한 사료배합표를 만들듯 우리의 식단을 구성할 수는 없으며 우리의 식문화 향상을 위하여는 개인별 체질 및 기호성과 직업별, 지역별, 남녀별, 연령별, 종교별 등 많은 여건에 따라 식단도 다양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어리가 남아도니 모든 국민 식탁에 정어리를 올리고 광어 도미는 수출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될

까? 78년 고추가 부족했을때 왜 우리는 고추를 수입해야 하였나? 다음해에는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한데,

마치 한나라의 국민을 거대한 병영의 군대로 생각해서 사료배합 처럼 국내에서 생산되는 몇가지 먹거리들로 식단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축산신보에 양계 양돈을 농업과는 별도의 산업인 가공업으로 몰아부치고 급기야는 사료식민지적 축산(飼料植民地 畜産)형태로 전환 발전하고 있는 실상인 것이라곤 결론을 맺은 기사가 게재되어 양계인을 당혹케 하였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값싸고 영양 많으며 건강 식품인 닭고기나 계란을 생산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가계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긍지로, 모든 어려움을 참고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양계인 모두가 하루 아침에 식민지화의 주동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낙인 찍히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축산정책의 방향설정이나 양계인의 긍지를 위해서 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양계인의 한사람으로 의견을 분명히 하여 앞으로 계속될지 모르는 논쟁이나 정책입안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양계산업은 식민지산업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화라고 하면 제국주의 정책을 취하는 국가가 미개발 국가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여 착취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이중에서 영토 점령이 아닌 경제적 식민지란 경제과정을 중심(中心)에 속하는 몇몇 자본주의 국가가 그 주위에 위성국가들을(周邊國家) 형성하여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과 국제분업을 통하여 종속적(從屬國家)지위에 얽매어 있다는 풍요로운 중심(center)과, 빈곤한 주변(periphery)으로 나누는 개념으로 주변국가내의 경제과정이 중심 국가의 과정(過程)들에 의하여 제약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계 양돈산업을 사료곡물과 증계 증돈 약품 등 생산자재를 공급하는 중심국가와 이를 구입하여 양계 양돈을 하는 주변국가로 구분하

고 양자의 관계를 식민지 또는 종속관계로 보는 것이다.

자급자족 너무 강조하면 축산물 먹어보기 어려워

이는 하나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인데 그 원류를 학자들은 두분류로 나눈다.

이들은 대외 의존의 감소라는 명분으로 수입대체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주장하나 그결과는 국민대중의 궁핍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렇게되면 대다수의 민중들이 축산물을 맛보기 힘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가 60년대 중반 사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보리로 축산을 고집해왔다면 오늘과 같은 풍요로운 식사 문화가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닭고기 계란에 대한 국민의 수요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 국민보건 체위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양계 양돈 산물이 그간 기여한 역할은 무시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육류 소비구조를 닭고기나 돼지고기로



대처하지는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70년대 후반기의 쇠고기와 소 수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소값 파동과 낙농 비육산업의 불황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착취의 소산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인상은 과연 우리나라 축산업을 올바르게 이끄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부족한 원자재의 수입은 불가피하다.

그보다는 국내 국제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계획적인 소 수입과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사료곡물 수입제도의 경직성이 외화를 낭비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축산업의 생산유통 소비의 구조적 전근대성을 타파하여 새로운 제도 창출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왜 게을리 하는가를 묻고 싶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변국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중심국가의 과정에서 결정해야 식민지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나 하는 점이다.

이러한 논리는 축산업 외의 모든 산업에 적용하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자연 가공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원자재의 수입을 식민지 산업이라고 매도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완전 자급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 점이다.

비교적 풍부하다는 시멘트산업도 기름을 때서 만드는 것이니 에너지 소비산업은 중동 산유국의 식민지 산업이란 말인가? 미국을 비롯한 일본 EC의 여러 나라들이 산유국들로부터 기름을 수입하는데 이들 나라들을 누가 주변국가라고 하는가? 미국이 브라질로부터 커피원료를 수입한다고 해서 미국의 커피산업을 브라질의 식민지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 불평등 거래나 특수한 착취관계라면 문제이지만 실증적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국의 양계 양돈산업을 식민지 축산으

로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속 비중속, 중심 주변, 착취 피착취, 억눌린 자 억누르는자, 가진자 갖지못한자, 소군업자 대 군업자, 재벌 중소기업, 농촌 도시, 등 이원론(二元論)적으로 구분하여 분단구조를 형성하고 상호 협조가 아닌 적대적인 상대로 몰아부치는 풍조는 산업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또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도 모호한 것이다.

명분도 중요하나 실리도 중요하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본주의적 무역체제에 통합되므로써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많은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이들 나라는 모두가 미국과 관계가 깊은 나라들이다. 자본주의 체제 속성이 이윤추구에 있다지만 그안에는 조화와 협력의 요소도 있으며 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도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사료곡물 등 생산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은 이들 거래국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 이를 종속적 관계로 본다면 우리에게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의 입장은 우리나라의 식민지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게되어 국제무역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사료곡물 수입은 거래 당사자 모두에 이익

선진국의 힘은 과대평가 하고 자신의 노력이나 책임은 과소평가 해서 문제의 핵심을 중심국가에 전가하기 보다는 자신의 힘을 기르고 발전의지를 높여 나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코 양계 양돈은 우리나라 낙농 비육산업 침체의 원인이 될 수가 없으며, 낙농비육산업이 스스로 기술과 경영의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GNP 세계 제 2위의 나라로 발전한 것은 국제무역을 종속관계로 보지않고 상호협력관계로 본 그들의 발전의지의 결과이다.

양계 양돈산업을 언제든지 국내에서 생산만 된

다면 강원도산 옥수수나 국산보리로 자급할 수 있으며 현재도 국내부존 자원을 농민의 생산비가 넘는 선에서 전량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하고도 국내에는 재고가 없어 부족량을 수입하는데 이를 식민지축산으로 매도하면 과연 국내 풀자원으로 60만톤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배합사료에 국내부존자원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폐쇄적인 자력갱생(自力更生) 정책을 추구한 중공이 국민들에 고도의 정치적 억압과 규제를 가하였고 발전정책의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의식주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최근 자급경제체제의 폐쇄성을 지양하고 외자 기술 생산원자재는 물론 사료곡물까지 도입하는 대외 의존적인 실용주의 노선을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어 자력갱생적 발전론은 이상론은 필자연정 한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더군나나 자원이 없는 우리는 자력갱생적 발전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경우에도 발전모델로 채택된 우자마 사상(종족사회의 결속)도 그결과로는 정부 및 그산하단체의 관리직 외에 다른 직업은 없다할 정도가 되어 우자마사상의 입안자인 니에레레 대통령이 이 계획의 실패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국제경제 체제에 통합되므로써 종속이 심화되기 보다는 우리나라는 통합되므로써 절대적 상대적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맹목적적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료곡물수입이 키퍼로 묶이고 제한된다면 이는 비극이 아닐수 없다.

다만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비능률과 낭비를 줄이고 외적 내적 모순을 찾아내어 개선하며 주요 원자재의 가격 폭등 품귀에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발전에 중요한 제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부존자원의 최대한 활용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재 인구증가율은 매년 6%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만 새로운 경제활동인구의 일자리와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 산업사회에 대응해 나가야 하고 국제화의 확대 및 무역지향적인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

국제화 속에서 산업의 고도화와 능률의 향상 비합리적인 사고방식 가치관을 바꾸어 합리적인 근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축산정책의 민주화와 해외의존을 줄이고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가며 아직도 축산물은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계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낭비와 사치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며 양계산업은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알뜰주부 현명한손 먼저찾는 닭과계란